

맞춤형 일자리 정책 추진... ‘행복무안’ 앞당긴다

군, 고용률 66.4%·일자리 1만3692개 목표 공시
지자체 일자리대상 공시제 부문 대상...전국 1위

무안군이 지속적인 맞춤형 일자리 정책 추진을 통해 인구문제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 유망기업 육성 등 당면 문제 해결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다.

17일 무안군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무안군 인구는 9만2687명이며, 평균연령 43.4세로 전남 22개 시·군 중에서 가장 젊은 지역이다.

남악지구와 오톡지구 조성으로 2020년 8만6132명, 2021년 9만1107명, 2022년 9만608명, 2023년 9만296명, 2024년 9만2687명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군은 청년, 노인, 여성, 취약계층 등 대상으로 직접일자리,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취·창업 지원 등 맞춤형 고용 정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제공에 집중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 전담 부서인 일자리팀을 중심으로 ‘일자리 선순환 협업시스템’을 구축해 전략산업 분야, 청년 분야, 농수산업 분야, 계층맞춤 분야,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의 5대 분야에 대해 일자리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군은 지난 3월 고용률(15세~64세) 66.4%, 취업자 수 5만1300명, 공공·민간 부문 일자리 1만3692개 달성을 목표로 하는 지역 일자리 공시제 2025년도 일자리 대책 연차별 세부 계획을 공시한 바 있다.

일자리대책 세부계획에서 직접일자리 창출(공공),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취·창업지원, 일자리 인프라 구축, 기업 유치 및 지원 등 7개 분야 293개 사업에 약 69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만3692개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군은 최근 4년간 고용노동부 주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부문에서 연속으로 수상(2022~2025년) 했으며, 특히 올해는 지난 9월 30일 충북 청주 OSCO에서 열린 202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시상식에서 전국 기초 지자체 중 1위라고 볼 수 있는 기초지자체 ‘대상’을 수상했다.

김산 군수는 “민선 8기 3차년도인 올해 지역 일자리 공시제 세부계획은 양질의 일자리에 비중을 높이며, 군 근로자들이 각



무안군이 지속적인 맞춤형 일자리 정책 추진을 통해 인구문제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 유망기업 육성 등 당면 문제 해결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개최된 무안군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모습.

산업의 전문인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문역량 강화와 유망기업의 육성을 중점으로 계획했다”며 “꾸준한 계획 이행을 통해 청년이 모여들고 근로자들이 행복한 무

안, 비상하는 일자리로 생동하는 행복무안을 만들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차별 세부계획은 매년 3월 말 무

안군 홈페이지 내 고시 공고 또는 지역고용정보네트워크(www.reis.or.kr) 홈페이지 내 공시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군은 앞으로도 내실있고 세부적인 계획 수

립을 통해 군민이 군정과 가깝게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 정책 추진을 이어 나갈 방침이다.

무안=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완도해양치유센터, 단체 방문객 ‘복적’

기업·학교 등 757개 단체 1만8137명 방문

우리나라 대표 치유 명소인 완도해양치유센터를 찾는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17일 완도군에 따르면 올해 완도해양치유센터를 찾은 방문객은 지난 12일 기준 기업과 학교, 기관·사회단체 등 757개 단체에서 총 1만8137명을 기록했다.

특히 기업의 복지 워크숍과 학생 현장학습, 여성 단체 방문 등 다양한 목적으로 완도해양치유센터를 찾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군은 단체 방문객 급증으로 업무 협약 체결에 따른 방문객 확보, 인센티브 제공, 기관·단체 맞춤형 일정 및 프

로그램 제공, 단체 예약과 제휴 숙박·장소 등 편의 제공이 작용한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인센티브의 경우 협약 기관은 이용료 30%, 10명 이상 단체 방문객은 20%를 할인한다.

단체 방문객이 가장 선호하는 테라피는 스킨, 해조류 머드 랩핑, 해조류 스파, 저주파, 향기 순으로 나타났다. 완도해양치유센터에서 테라피를 한 후 센터가 위치한 신지 명사십리 해변에서 맨발 걷기와 노르딕 워킹을 하는 시간도 가져 치유 만족도를 높였다.

완도=김혜국 기자 knk1831@

젊은 감성 담은 ‘진도홍주 하이볼 페스타’ 성료

전통·현대의 만남... 전 세대 즐기는 축제 재탄생

진도군은 최근 진도개테마파크 국화축제가장에서 ‘진도홍주 하이볼 페스타’를 관객들의 큰 호응과 함께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통 명주인 진도홍주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해 젊은 세대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세대 공감형 축제’로 추진됐다.

(사)진도군관광협회가 주관하고 진행한 이번 축제는 ‘전통과 현대의 만남’을 주제로 진도홍주를 활용해 만든 다양한 음료를 선보이며, 진도홍주를 새롭게 즐기는 방법을 제시했다.

행사장에는 하이볼 바, 디제이(DJ) 공

연, 베틀시장, 체험활동 등 다양한 참여 공간이 마련됐으며, 홍주 각테일 만들기, 홍주 빗깍을 주제로 한 기념 촬영 공간, 홍주의 역사와 제조 과정을 소개하는 홍주 역사관 등이 운영돼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특히 진도홍주의 붉은빛과 향을 살린 ‘시그니처 하이볼’이 큰 인기를 끌었으며, 술이 들어가지 않은 음료(논알코올 각테일)도 함께 제공돼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됐다.

축제는 통기타와 국악 공연으로 시작해 전자음악(EDM)과 케이팝(K-POP) 공연으로 이어지며, 젊음과 열정이 넘치는

무대를 선보였다.

또 진도 출신의 청년들이 운영하는 먹거리 판매장에서는 진도의 특산물로 만든 전복튀김, 홍주 초콜릿, 전복카츠 등 진도 홍주와 어울리는 간식을 판매하고, 빨간색 옷을 착용한 방문객에게는 진도 기념품(굿즈)이 증정돼 축제의 즐거움을 더했다.

군 관계자는 “진도홍주 하이볼 페스타는 전통과 젊음이 만나는 축제다”며 “세대가 함께 어울리며 진도홍주의 전통과 가치를 새롭게 알리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앞으로도 지역의 특색을 살린 문화 행사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진도 관광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진도=서석진 기자 ss9399@gwangnam.co.kr

영암·고용노동부 상생 협약
지역경제 활성화 등 ‘맞손’

영암군은 최근 군청에서 고용노동부와 ‘지방 살리기 상생 자매결연 협약식’을 개최했다.

‘함께 연 상생의 상차, 떠오른 동행의 풍선’을 구호로 한 이번 협약은 지난 8월 열린 ‘제33회 국무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 후속 조치로,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협력으로 내수 활성화와 상생 소비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우승희 영암군수와 이도형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이재희 목포고용노동지청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기관행사 개최 시 지역 특산물 활용, 고향사랑기부 참여·홍보 등에 나서고, 군은 지역 특산물·관광명소 정보 제공, 고용노동부 교류 활동 지원 등을 추진한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

37년 기술력,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및 특수벨트 가공전문

오양물산



오양물산주식회사
O-YANG PRODUCT CO., LTD.

· 본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아로 534-26(장덕동) · 제2공장 : 광주시 광산구 하남산단2번로 125(하남동)
· Tel : 062)953-0006 · Fax : 062)955-0030 · URL : http://www.oyangms.com